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 |

| 정성분석팀 12개국 보고서 |

인도네시아의 경제안보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인도네시아와의 경제안보 협력

< Executive Summary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전략을 제시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4위의 인구규모를 가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이자 자원부국으로 우리나라와는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 국가다. 최근 들어 원자재와 핵심 광물의 공급처로서 더욱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아세안의 중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영역이 경제 안보 측면에서 가일층 확장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안보 협력을 SWOT 분석으로 살펴본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 있어 강점(Strength)으로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풍부한 원자재 및 핵심 광물 보유, 성장일로 제조업 기반을 들 수 있다. 약점(Weakness)은 열악한 인프라 및 물류 여건, 정부 정책(규제)의 불확실성 지속, 자원 민족주의 경향이다. 기회(Opportunity)로는 인도네시아의 거대 소비시장, 정부의 적극적인 신 산업 유치, 아세안의 경제 통합 진전이 눈에 띈다. 위협(Threat) 요인으로는 미-중 갈등 속 지정학적 리스크, 환경 등 ESG 관련 규제 강화가 있다.

경제안보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4개 방향에서 모색될 수 있다. 즉, 1) '포스트 차이나 시대'에 있어서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로 활용 2) 우리가 기술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예: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아세안의 거점으로 조성 3) 핵심 광물의 공급처로서 전략적 연대 구축, 4) 거대 소비 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협력 확대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1. 한-인도네시아 양국관계 현황

가. 양국간 협력의 발전사

2023년 올해는 한국-인도네시아가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1973년 대사 급 외교관계가 공식적으로 수립 되기 이전, 1964년 자카르타에 코트라(KOTRA) 사무소가 먼저 설치되었고, 1966년에 주 인도네시아 총영사관이 문을 열었다.

양국 정부는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2006년에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설정하였다.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 양자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최상급인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다. 동남아시아 10개국중 유일하게 인도네시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는 1973년 외교관계가 공식 수립되기 이전부터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잡아왔다.

우리나라에게 해외 투자 1호의 대상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였다.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이전인 1968년 '한국 해외투자 1호 기업'으로 코데코(KODEKO, 한국 남방개발)가 원목개발 사업에 최초로 진출하였다.¹ 1960~1970년대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이던 합판은 인도네시아 원목을 재료로 한 것이었다. 당시 코데코 대표인故 최계월 회장은 1960년대 초부터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의 산림개발에 뛰어들었다. 당시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5000만달러에도 못 미치고 해외투자 관련 법규가 없어 해외투자를 적극 추진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산림개발 사업은 한국의 합판 수출 산업의 중요한 동력원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은 제2차 5개년 계획이 막 시작된 단계에서 목재와 석유 등 원자재 확보가 필요했다. 코데코가 현지에 진출한 이후 코린도(Korindo) 등 원목개발 기업이 속속히 진출했다.

코데코(KODEKO)는 1981년 '해외 원유개발 제1호'라는 새 역사도 썼다.² 산림개발과는 전혀 관계없는 원유 시추·개발이란 점에서 이 사업의 추진 또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중동발 오일쇼크는 한국 경제를 강타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원유 확보와 새로운 유전 개발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인도네시아는 당시 일산 120만 배럴을 생산하는 OPEC 회원국이었지만 대부분 미국, 일본, 유럽의 석유 메이저 기업들에 의해 선점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데코가 한국

1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129페이지, 순정아이북스(2020)

2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131페이지, 순정아이북스(2020)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경제성 있는 해외 유전으로 ‘서부 마두라 유전 (West Madura Block)’을 확보한 것이다. 그 후 1984년 8월 시추 4번째 공구에서 생산된 42만 8천 배럴의 첫 선적 원유가 한국 여수항에 도착함으로써 해외 생산 원유가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된 것이다. 그 외에도 1973년 인도네시아 ‘한국해외생산 플랜트 수출 1호’인 대상(당시 미원)의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 건설, 1992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사무소 1호 설치국가, 한국이 개발한 고등 훈련기 T-50과 한국형 잠수함을 처음 구매한 나라도 인도네시아다.

이와 같이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의 핵심적인 동력은 경제 협력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코데코를 통해 해외 직접투자(FDI)를 시작한 것을 필두로 인도네시아와 50년여년 동안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해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 양국간 경제 협력은 중화학공업, 유통,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방산분야로 확대되게 되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한류의 확산에 힘입어 콘텐츠 산업 진출과 한류 관련 상품의 수출로 이어지게 된다.

나. 한-인도네시아 CEPA

양국간 경제협력의 기념비적인 이정표는 2020년 12월에 최종 타결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K CEPA)’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2021년 6월에, 인도네시아 의회가 2022년 8월 30일에 CEPA 비준을 각각 완료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이 발효되게 되었다. ³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 (상품) 양국은 자국 양허표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
- (서비스·투자) 양국은 투자자, 적용대상투자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
- (협력) 산업·농수임업·표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 협의

³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참조

CEPA는 투자와 경제협력 등 경제 관련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의 협정이다. CEPA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입품목 중 95.5%, 인니는 93.0%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한국 97.3%, 인도네시아 97.0%)하게 된다.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하여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p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을 확보한 셈이다. (아세안 FTA에 따른 인니측 상품시장 개방 수준 80.1% → 한-인니 CEPA 93%)

특히, 인니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용 강판, 자동차부품, 석유 화학제품 등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내 거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국은 금번 CEPA에 경제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등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 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기업들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2.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

가. 경제 일반

인도네시아의 2021년 GDP는 1.2조 달러로 세계 16위의 경제 대국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G20 회원국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7천만명으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넓은 영토(1,904천km², 세계 15위)와 다양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고 지리적으로 인도양과 태평양, 남중국해와 접하고 있어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다대한 국가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의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2022년도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며 인도네시아는 2020년 -2.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인 팜유, 석탄, 광물 등의 국제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3.7%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2022년 들어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서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는 궤도를 보였다. ⁴

2021년 외국인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31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내국인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2,24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외국인 투자

⁴ Asia Development Bank Outlook 2022(www.adb.org/outlook)



산업별 순위를 살펴보면, 금속·기계·전자(70억 달러), 광업(38억 달러), 수송·저장·통신(32억 달러), 전기·가스·수도 (29억 달러), 식품(23억 달러), 부동산(22억 달러), 화학·의약(16억 달러), 자동차(15억 달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주요국 외국인 투자 순위는 싱가포르(94억 달러), 홍콩(46억 달러), 중국(32억 달러), 미국(25억 달러), 일본(23억 달러) 순이며, 한국은 16억달러로 7위를 기록했다. 다만 외국인 투자 순위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에는 세제나 금융 인프라 상 양호한 조건을 찾아 본사의 소재지만 싱가포르나 홍콩에 두고 실제 사업은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허수’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투자 차원에선 중국, 미국, 일본이 더 규모가 크다고 분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만 놓고 보면, 2019년 11억 달러, 7위에서 2021년에 16억 달러, 7위를 기록하여 순위 상으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수출은 2,919억 달러, 수입은 2,375억 달러로, 총 교역액은 약 5,294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544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2021년 무역 수지 흑자 354억 달러와 비교할 때, 53.75%의 증가를 보인 셈이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 기인하는 바 크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성 연료, 식물성 유지, 철강, 전자기기 및 제품, 자동차 등이며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성 연료, 보일러·기계류·부품, 전자기기, 철강, 플라스틱이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역 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 순이며, 총 교역 액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7위 교역 대상국이다.

나. 석탄 및 광물자원

인도네시아는 석탄을 비롯하여 다수의 핵심광물자원의 주요 보유국이다. 석탄, 니켈, 보크사이트 등 주요 자원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석탄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 보유국 중 하나로 매장량 면에서 중국, 인도, 미국, 호주 등에 이은 7위 규모다 총 349억톤으로 추산되며, 전 세계 석탄 량의 약 3.2%를 차지하고 가채 년수는 62년에 달한다. 생산량의 약 4분의 3을 중국, 인도, 일본, 한국에 공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 다운스트림 (downstream) 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석탄의 가스화, 코크스 제조, 석탄 액화, 석탄 품질 개선, 연탄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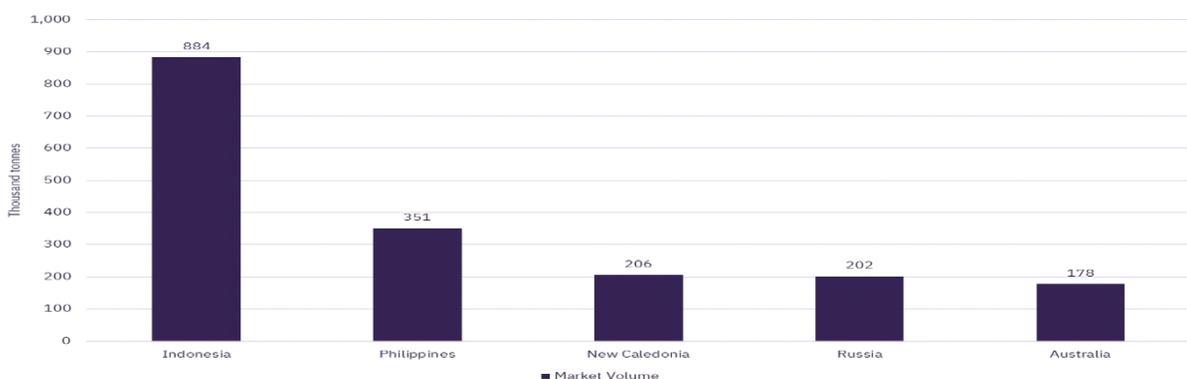
석탄수 혼합 등 7가지 석탄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Country	Coal Reserves (million tonnes)	Share of Global Reserves	Region
U.S. 🇺🇸	248,941	23%	North America
Russia 🇷🇺	162,166	15%	Europe
Australia 🇦🇺	150,227	14%	Oceania
China 🇨🇳	143,197	13%	Asia
India 🇮🇳	111,052	10%	Asia
Germany 🇩🇪	35,900	3%	Europe
Indonesia 🇮🇩	34,869	3%	Asia
Ukraine 🇺🇦	34,375	3%	Europe
Poland 🇵🇱	28,395	2%	Europe
Kazakhstan 🇰🇿	25,605	2%	Asia
Turkey 🇹🇷	11,525	1%	Europe

*출처: “Which countries have the world’s largest coal reserves?” Mining.com (2021.9)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인 니켈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매장량과 생산량 두 부분 모두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니켈 매장량은 1억 4,300만톤, 가채 매장량은 4,900만톤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니켈 매장량 가운데 약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2022년 미국 지질조사국 조사(USGS)에 따르면 채굴 가능한 인도네시아 니켈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 중 22%로 1위였다.

니켈 생산량은 2006년 15.7만 톤 수준이었으나, 매년 대규모의 투자를 받아들여 2021년 90만 톤까지 증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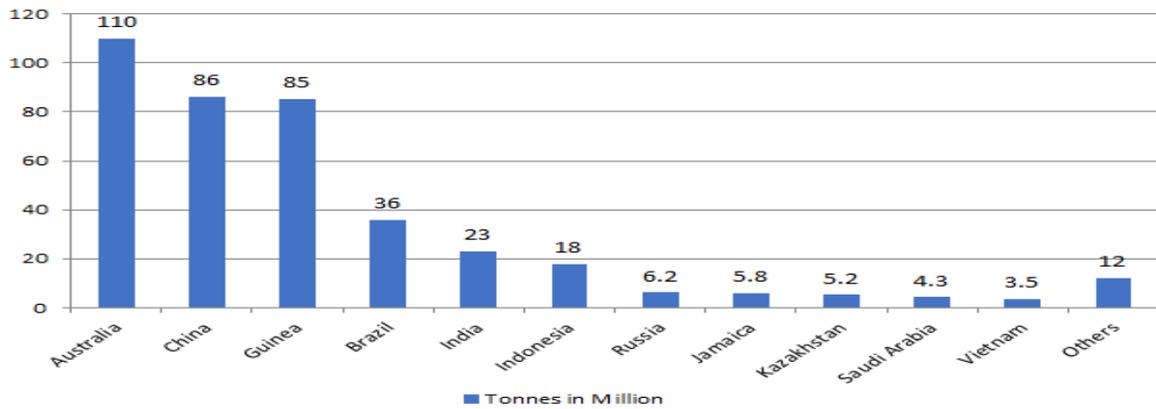
*출처: Global Data(2021)

보크사이트의 경우, 매장량은 12억 톤, 생산량은 1,800만톤(2021년 기준)으로,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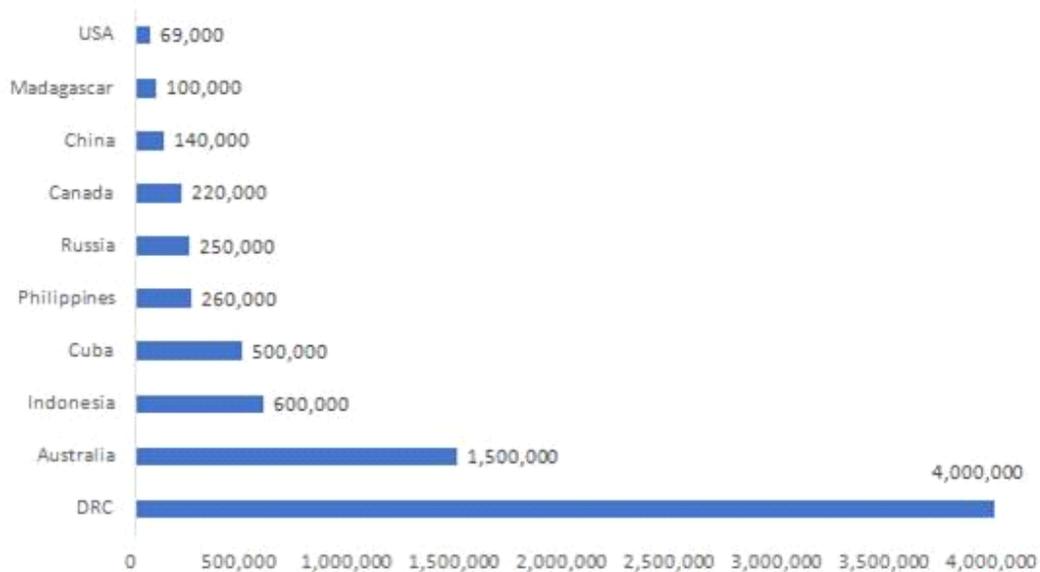
부문 모두 세계 6위 수준이다.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 제조에 필요한 핵심 요소이다.

Top 10 countries with highest Bauxite production in 2021



*출처: AL Circle www.alcircle.com (2022.5)

또 다른 배터리 제조의 핵심 광물인 코발트의 경우에도 가채 매장량은 150만톤 정도로 2022년 기준 DR콩고, 호주에 이어 세계 3위의 수준이다.



*출처: Global cobalt mine reserves by country in 2022, tons. Source: USGS, preliminary estimate.

코발트 자원부국인 콩고민주공화국과 함께,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국 중 하나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1%에서 오는 2030년 20%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⁵ 코발트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이 콩고민주공화국에 집중될 정도로 원자재 확보가 쉽지 않다. 또한 콩고 민주공화국의 코발트 생산을 둘러싼 일부 윤리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공급 확대는 코발트 공급망에서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산업 소재이자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 집전체로 많이 활용되는 구리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이다. 2021년 기준 구리 정광은 전체 수출품목 중 6위를 차지했으며, USGS 2022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구리 정광 생산량은 81만 톤, 매장량은 2400만 톤이다.

<국가별 구리 생산량/매장량> (단위: 천 톤)

	Mine production		Refinery production		Reserves ⁶
	2020	2021*	2020	2021*	
United States	1,200	1,200	918	1,000	48,000
Australia	885	900	427	450	793,000
Canada	585	590	*290	300	9,800
Chile	5,730	5,600	2,330	2,200	200,000
China	1,720	1,800	10,000	10,000	26,000
Congo (Kinshasa)	1,600	1,800	1,350	1,500	31,000
Germany	—	—	643	630	—
Indonesia	505	810	269	270	24,000
Japan	—	—	1,580	1,500	—
Kazakhstan	552	520	515	470	20,000
Korea, Republic of	—	—	671	650	—
Mexico	733	720	492	470	53,000
Peru	2,150	2,200	324	350	77,000
Poland	393	390	560	590	31,000
Russia	*810	820	1,040	920	62,000
Zambia	853	830	378	350	21,000
Other countries	2,840	2,800	3,450	4,300	180,000
World total (rounded)	20,600	21,000	25,300	26,000	880,000

*출처: USGS 2022

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Downstream 산업 육성 정책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법령(정부령 4호)을 통해 원자재 형태의 광물 수출을 금

⁵ “Indonesia cobalt supply to push market into surplus this decade”,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 source.benchmarkminerals.com, (2022.10.26)



지하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원광 형태로 직접 수출하기보단 국내에서 정제·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도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2014년부터 시행 중이며, 핵심 광물이나 원자재 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에 옮기고 있다. 2020년부터 니켈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2022년 초에는 석탄과 팜 유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또한 보크사이트는 2023년 6월부터 수출 금지 예정이다. 구리, 주석의 수출 금지도 예고된 상태다.

니켈 다운 스트림 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다. 세계 각국의 전기차 전환 정책과 이에 호응하는 기업 전략에 따라 니켈 수요가 감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니켈 보유 부국인 인도네시아는 2020년부터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해 기업들로 하여금 직접 생산에 참여하도록 강력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니켈 수출을 금지하자 한국, 중국 등의 해외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제련·정련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수출세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 역시도 니켈을 수출하기보다 기업이 들어와 협력하며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2022년 8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연내에 니켈 수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⁶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니켈 연관산업을 자국내에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생산국가의 협의체로 이른바 ‘니켈 판 OPEC’ 창설 구상을 주창하고 있다. 향후 20년간 19배가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니켈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거세지고 있다.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으로서 인도네시아는 호주와 캐나다와 OPEC 과 같은 특별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3. SWOT분석을 통해서 본 인도네시아와의 경제안보

본격적으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양국 협력의 가능성과 추진 방안을 살펴보자. 인

⁶ Bloomberg, "Indonesia May Impose Nickel Export Tax This Year, President Jokowi Says", 2022.8.19

도네시아가 잠재력을 SWOT 분석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양국간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의 미래를 조망해 보도록 한다. 즉,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의 4가지 측면에서 조망해보고자 한다.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에게 어떠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는지를 SWOT 분석을 통해 살펴보자. 강점과 약점은 인도네시아 내부 요인 및 한-인도네시아 양자 관계에서 오는 요인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회와 위협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미래와 외부환경에 따른 요인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인도네시아 경제 안보 SWOT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도네시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 풍부한 원자재 및 핵심 광물 보유 ○ 성장 일로의 제조업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인프라 및 물류 여건 ○ 정부 정책(규제)의 불확실성 지속 ○ 원자재 금수 등 자원 민족주의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어나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거대 소비시장 ○ 전기차 등 적극적인 유망 산업, 신기술 유치 ○ 아세안의 경제 통합 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 갈등 속 지정학적 리스크 ○ 환경 등 ESG 관련 규제 강화



가. 강점 (Strength)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강점은 양국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의 1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양자관계의 최상급에 해당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가 유일하다. ❖

한-인도네시아 관계는 1973년 수교 이래 경제, 통상, 문화, 인적교류, 외교안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가이자,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의 지배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다. 또한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라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2022년 7월 방한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공급망과 경제 안보까지 포괄하여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하였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이 매우 풍부한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하여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간 경제 협력 관계는 금년 1월 발효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CEPA)’에 힘입어 더욱 발전할 전망이다. 아울러 금년 2월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 강점은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풍부한 원자재와 핵심광물에 있다. 2021년 기준 세계 1위의 니켈 매장량을 비롯해 △주석(2위) △코발트(3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원자재 부국이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원자재를 직접 수출하기보단 이를 가공해 부가가치를 더한 뒤 수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특히 주요 광물은 원광 형태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전 세계 생산량 1위인 니켈의 경우, 2020년 원광 수출을 중단한 상태이다. 금년중 보크

사이트와 구리 정광도 수출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광물을 그대로 수입하던 외국 기업들도 인도네시아에 생산 공장을 지어 대응하고 있다. 2022년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 크라카타우 스틸과 합작한 크라카타우 포스코의 제2고로와 냉연공장 신설을 위해 35억 달러(약 4조3천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LG 에너지솔루션과 롯데 케미칼도 배터리 셀 생산, 석유화학 단지 조성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와 완성차의 국내 통합 생산을 통해 세계적인 전기차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선포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니켈 제련 산업 투자 유치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브라질 광산기업 발레(Vale)의 인도네시아 법인은 중국 광산기업 저장 화여우 코발트(Zhejiang Huayou Cobalt) 및 미국 완성차 제조사 포드(Ford Motor) 등과 함께 86억 달러(한화 약 12조 원)를 들여 인도네시아 술라웨시(Sulawesi)섬의 소로와코(Sorowako) 광산에서 니켈 제련소 3곳을 짓기로 합의했다. 독일 화학기업(BASF)은 프랑스 광산업체 에라메트와 함께 26억 달러를 투자, 니켈 제련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세번째 강점은 성장일로의 제조업 기반과 제조업 경쟁력 제고정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 4월 제조업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으로 진입한다는 구상, 즉 ‘Making Indonesia 4.0’ 정책을 채택했다.⁷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2016년 세계 16위에 머물렀던 경제규모를 2030년까지 세계 톱 10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5대 제조업(식음료, 섬유, 자동차, 전자, 화학)을 우선 추진 산업으로 정하고 각 분야에 ‘Industry 4.0’의 개념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자국 제조업의 GDP 기여도를 60%, 제조업 수출의 65%, 제조업 고용의 60% 달성을 이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규모 통신망 구축 사업 ‘Palapa Ring’을 통해 한층 개선된 인터넷 접근성과 Go-jek, Tokopedia, Traveloka 등 자국 유니콘 스타트업의 성공을 발판삼아 제조업에도 ‘IT 혁신’의

⁷ 인도네시아 산업부 홈페이지(www.kemenperin.go.id). 2018.7



바람을 확산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코로나 19를 겪으며 당초의 5개 분야에 의료 기기와 제약분야를 추가해 7대 중점분야로 확대하였다.

제조업 후발주자인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노동집약적인 산업(신발, 섬유, 봉제, 전기 전자)등에 의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도 빠른 캐치업과 비약적인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대비 저임금의 장점을 뛰어넘어 생산성 제고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제조업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나. 약 점 (Weakness)❖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은 경제 발전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1년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부문의 세계 경쟁력은 전체 64개 국가 중 57위로, 국가경쟁력이 37위인 것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다.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⁸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2014년 1기 정부 출범이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프라시설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다. 2019년 재선이후 출범한 2기 정부에서도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기반 시설 확충 정책을 지속추진 중에 있다. 1기 집권 기간(2014-2019년)중에 신규 도로 3,500km, 항구 19개, 공항 10개, 댐 17개 등 다수의 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20년 발표한 중기경제계획에 따르면 2020-2024년 기간에 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설(기본 인프라 서비스), ② 경제 발전을 위한 시설, ③ 도시 발전을 위한 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조달에 있어 공공부문 예산 부족이라는 장애가 도사리고 있다. 대부분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공공재정 투입 보다는 민-관 협력사업(PPP) 및 여타 혁신적 금융 기법을 통해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지만, 경제성과 타당성 면에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둘째로는 정부 정책(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은행(World Bank)가 집계한 ‘비즈니스 하기 편한 환경(Ease of Doing Business)’ 조사에 따르

⁸ 인도네시아 개황, 외교부, 2022.6월

면,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전세계 190개 국가중 7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⁹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는 전체 2위를 기록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12위), 태국(21위), 베트남(70위)에 이어 5번째 수준이다.



*출처: 세계은행,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2020', 2021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전체 순위 73위에 못 미치는 분야로서 ① 새로운 사업 시작상의 난관(140위), ② 계약의 이행 미흡(139위), ③ 국경을 넘는 교역상의 애로

⁹ 세계은행 홈페이지(<https://data.worldbank.org/>)



(116위)가 거론되고 있다. 그 외에도 건축허가를 얻는 데 따른 어려움(110위), 부동산 관련 규제(106위) 등이 적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책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개혁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 현장에서는 정책의 안정적인 집행이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관세, 조세의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조리와 부패의 사례들이 여전히 정책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고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을 관할하는 군과 경찰당국의 부적절한 개입과 금품 요구 등이 근절되고 있지 않는 것도 실제 비즈니스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invisible cost)을 기업 차원에서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불만이 상존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글로벌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 경향이 인도네시아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원자재 수출이나 단순 조립 형태의 자원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완제품 생산으로 전환하여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으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핵심광물, 석유, 목재 등 다양한 천연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의 수입에서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이기 때문이다.

자국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던 원자재가 타국에서 가공을 거쳐 비싼 가격에 다시 수입되고 있는 무역 구조이기에 인도네시아는 이를 개선하고자 자국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 후방 글로벌 가치 사슬(GVC)에 참여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제구조 체질 개선에 나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원광석이나 원자재의 수출을 중단하고 해외에서 인도네시아에 해당 원자재 관련 산업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에만 국한하여 수출을 완화하여 다양한 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09년 법령(정부령 4호)을 통해 원자재 형태 광물 수출 금지를 정하고 이를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동 법령은 광산권 허가제 채택, 중앙정부의 광물 가격 책정 권한 보유, 연간 생산량의 25% 국내시장의무화, 수출 전 가공단계 의무화(제련소 설치), 광산개발, 운송, 가공 등 인도네시아 현지 광업서비스 업체 사용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광산 제품 가공 및 정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부터 니켈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2023년 초에는 석탄과 팜 유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또 보크사이트는 2023년 6월 11일부로 수출이 금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리, 주석의 수출 금지도 예고한 상태다. 원광 형태로 직접 수출하기보단 국내에서 정제·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도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2022년 8월 16일 국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천연자원 가공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원자재 수출은 계속해서 감소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1월 유럽연합(EU)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석 수출 금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를 위반했다고 분쟁 해결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는 광물 다운스트림 산업에 초점을 맞춰 원자재 수출보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국 산업 육성 정책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WTO는 2022.11.20 EU의 손을 들어줬다.¹⁰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WTO 결정에 불복하고 광물 수출 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원자재와 원광석 수출 금지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원자재 가공과 상품화를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직접 채굴, 생산, 제련과 가공을 목적으로 한 현지 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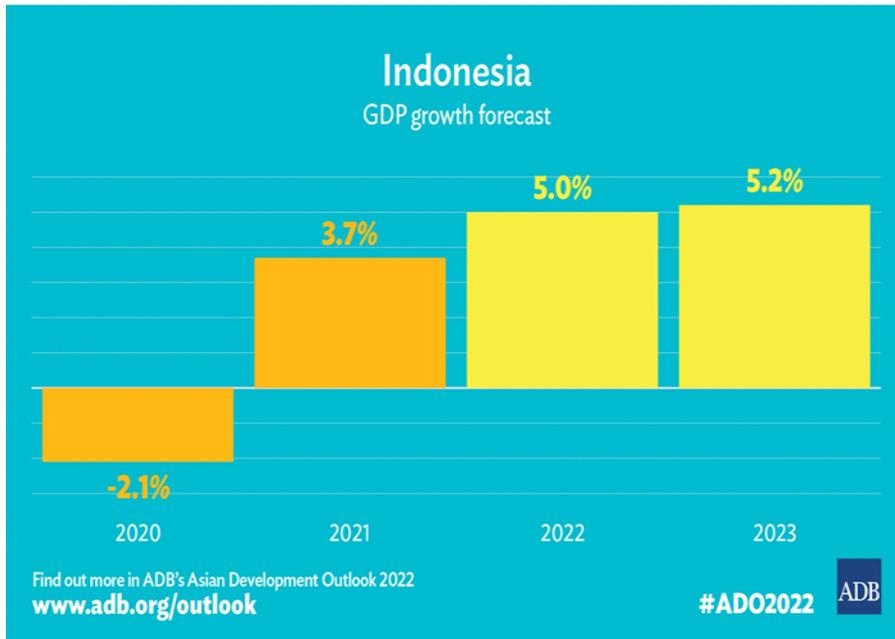
다. 기회 (Opportunity)

SWOT분석상의 기회요인 중 첫번째로 늘어나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거대 소비시장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규모가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3개국 인구의 합(2억 7,162만 명)과 비슷한 수준이며, 명목 GDP는 2019년 기준 1조 1,191억 달러(세계은행 기준)로 ASEAN 10개국 총 GDP의 약 3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 규모에 기반한 경제력은 최근 10년간 평균 5%대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시현하고 있다.

¹⁰ European Commission homepage(ec.europa.eu), WTO panel rules against Indonesia's export limitations on raw materials (2022. 11. 30)



코로나 팬데믹 기간중인 2020년 마이너스 2.1%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빠른 회복세를 보여 3.7% 수준으로 반등하였다. 이후 2022년 5%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5.2%대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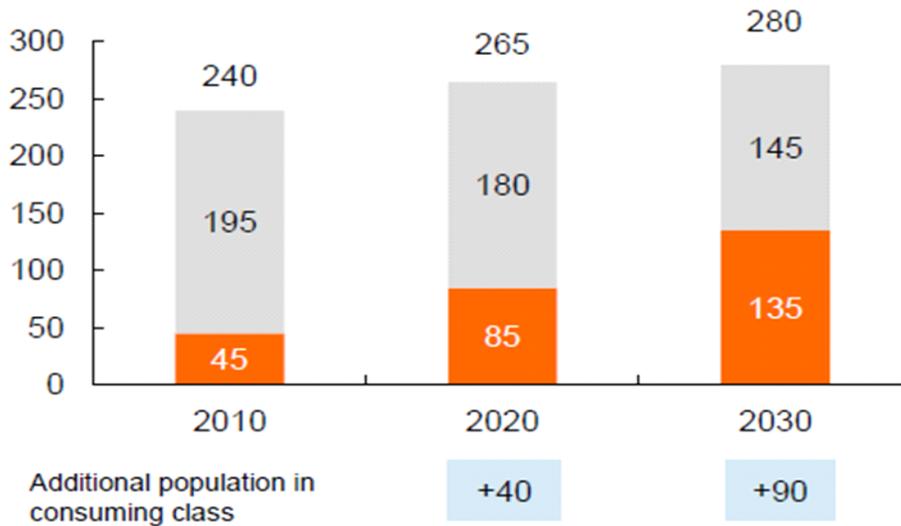


*출처: 아시아개발은행(ADB,)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www.adb.org/outlook)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인도네시아의 소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McKinsey의 전망에 따르면, 2020년 현재의 중산층의 수준은 8,500만 명 선으로 추산되나 30대 이하의 젊은 소비층의 소비 주도, 빠른 속도의 도시화 등으로 2030년에는 이의 1.5 배 이상인 1억 3,500만 명의 인구가 중산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중산층은 일반적으로 소비액이 하루 1인당 10-100달러 사이인 인구를 지칭)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민간소비, 국내외 투자가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를 견인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¹¹ 아시아개발은행(ADB) 인도네시아 보고서(www.adb.org/outlook)(2022.12)

(mn pax) ■ Below consuming class ■ Consuming class



*출처: McKinsey & Company, 'The Evolving Indonesian Consumer', 2014.1.1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현상은 인도네시아의 젊은 소비자들이 디지털에 친숙 해지며 팬데믹 이후 식료품 및 뷰티 제품, 의류 등을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입하고 음식배달 등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사용빈도와 지출을 늘려가는 추세라는 점이다. 또한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공유하는 것을 즐기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사용에 능하므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교류와 공감,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영향력 증대 등이 새롭게 눈에 띄고 있다. 이와 같이 잠재적 메가 소비시장으로의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은 갈수록 비중을 더해갈 전망이다.

둘째로는 적극적인 유망 산업과 신기술 유치 정책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가치 사슬(GVC) 재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유망 제조산업 육성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원(원자재) 수출이나 단순 조립 형태 구조에서 탈피해 고부가 제품 생산을 통한 GVC상류 포지셔닝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GVC는 원자재나 1차 소재를 생산 후, 타 국가로 수출하는 업스트림(Upstream)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운스트림 분야는 단순 조립 비중이 높은 편이다. GVC 참가도는 통상 업스트림보다 다운스트림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후방 참여도는 타 아세안 국가와 대비하여 낮은 편이다.

'Making Indonesia 4.0' 정책을 통해 5대 중점 분야 제조업, 즉 식음료, 섬유/봉제,



자동차, 화학, 전자분야의 제조업 육성을 추구한다는 방침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의료기기와 제약 분야를 추가하여 7대 중점 분야로 확대하였다. 선정된 제조업들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로서 새로 추가된 분야 제외 5대 분야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분야별 개발을 위해 국영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섬유와 봉제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팩토리, 원자재 생산 능력 향상,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고부가가치 섬유 생산등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가파른 임금상승과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미국과 유럽 바이어로부터의 주문 감소로 구조조정의 과제를 안고 있는 섬유와 봉제 산업 분야에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화학 산업 분야에서도 거대한 내수시장 규모에 비해 높은 수입 의존도, 내수 수요 충족이 불가능한 자국 기업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자국 가스전 근접 지역에 석유화학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달성하고, R&D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바이오 연료, 플라스틱 등 차세대 화학 제품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코위 정부는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별법(옴니버스법)을 2020년 10월 제정하였다. 노무, 건설, 인허가, 환경보호, 무역 등 정부령 45개와 투자사업, 정부조달 등에 대한 대통령령 4개로 이루어진 이 특별법 시행은 ①외국인 투자 분야 개방, ②고용환경 개선, ③위험에 기반한 인허가 절차 변경과 인허가 플랫폼으로 처리 일원화 등을 담고 있다.

세번째로는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지역협력체인 아세안(ASEAN)의 경제 통합이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진출은 바로 하나로 통합되는 아세안 시장으로의 진출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아세안의 통합이 진행되는 것과 비례해서, 아세안의 자원과 인력, 공급망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증대된다.

아세안은 2000년대 들어 부상한 중국과 인도경제에 대응하고, 세계적인 FTA 확산에 참여하기 위해 '경제통합'에 주목했고,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를 설립하였다. 아세안은 인구 6억 7천만 명의 아세안을 단일 시장이자 단일 생산기지로 묶은 경제공동체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 내에서 상품, 서비스, 자본, 숙련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역내 교역 장벽을 없애고 인프라를 연결해 고도로 통합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까지 달성할 향후 10년간의 경제통합 로드맵인 ‘아세안 경제 공동체 청사진 2025’는 현재 이행단계에 있으며, 관세 철폐에서는 거의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비관세 장벽, 개발 격차로 인한 상이한 규제 수준, 숙련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장애 등은 앞으로 해결해 야할 과제이다.

또한 아세안은 향후 아세안의 질적인 통합을 강화하고, 디지털화, GVC,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등 공통 이슈에 총체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있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또는 사업에 있어서 개별 국가로서의 인도네시아를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아세안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보는, 즉 ‘1+ 10’ 방식의 동시병행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라. 위협 (Threat)

위험요인으로는 ① 미-중 갈등 속 지정학적 리스크 ② 환경 등 ESG 관련 규제 강화를 들 수 있다.

먼저 더욱 가열되는 미-중간 경쟁 속에서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살펴보자. 미-중간 갈등의 심화로 인해 지정학적인 고려와 위험도가 증대되는 현상은 인도네시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중국의 공세적인 인도네시아 접근은 미-중간 갈등 구도하에서 인도네시아와의 교역, 투자는 물론,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리스크로서 다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2013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구상의 중심축인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건설을 제안한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다. 시진핑 주석은 당시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을 통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을 대상으로 한 경제 회랑과 협력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중국이 펼치고 있는 해양 실크로드 구상의 중심에 인도네시



아가 위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인도네시아에게 있어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인프라 개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1960-70년대를 거쳐 일본이 자국의 '안 마당'과 같은 튼튼한 입지를 인도네시아에서 쌓았으나 이제 인도네시아에서의 위상은 중국의 공세적인 진출에 밀려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국은 '일대 일로' 정책의 추진과 동시에 핵심 광물, 자원의 채굴, 제련 등에 직접 투자하면서 인도네시아를 공급망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카르타-반둥간 고속철도 건설, 중국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인프라 측면에서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의 주도국이자 G20 회원국인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자원 공급지 및 시장으로서 인도네시아를 중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코위 대통령의 2015년 3월 중국 국빈방문 시 648억 달러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를 약속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5년 4월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정상회의 전 일정에 참석하는 등 정상급 교류가 활발하다.

인도네시아는 항만·도로·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무역수지 악화, 중국인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로 활용되고, 인도네시아에는 부가가치 창출이 제한됨으로써 인도네시아 경제의 중국 의존도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대 인도네시아 접근을 견제하기 위해 정치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인도네시아의 청정, 친환경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미-인도네시아 양자간 접점을 늘려가고자 하고 있다. 2021년 12월 블링컨(Blinken) 미국 국무장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연설하고, 2022년 5월 인도네시아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동참하는 등, 균형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미-인도네시아 양국간에 엿보이고 있다. 그간 군사안보 분야에 집중되었던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경제 관계로 확대·강화하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 산업 면에서 미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은 과거와 비교하여 정체 상태에 있어 실질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들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제 표면화된 사례로 바이든(Biden) 미 행정부가 시

행하고 있는 ‘인플레이 감축법 (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들 수 있다. 적용대상은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의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며, 2027년부터는 80%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FTA 미체결 국가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는 광물의 채광, 가공, 제련, 정제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이루어질 계획으로 이 경우에는 미국의 IRA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IRA 법상의 또 다른 제약요인은 ‘해외 우려 법인(foreign entity of concern)’에 관한 부분이다. 배터리 지원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2024년부터 해외 우려 법인에서 생산·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채용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이 아직 정확히 ‘해외 우려 법인’의 정의를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법에서 규정한 사례를 볼 때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통제하는 기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의 채굴, 제련, 가공을 하는 중국 기업 또는 중국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합작 법인들이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니켈 중간제품이 대부분 인도네시아 광산, 중국 제련회사 조합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IRA 법에 적용을 받게 될 여지가 크다. 즉, 중국 제련 회사를 거쳐 나온 중간제품이 배터리에 사용되면 IRA에서 규제하는 해외 우려 법인의 생산 제품에 해당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다.

둘째로는 인도네시아에서 강화되고 있는 환경 등 ESG 관련 규제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어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재무적 성과 외에도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고려해 기업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ESG의 바람은 인도네시아에도 예외는 아니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1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 참가해 탄소 중립 의지를 표방했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을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50년부터 출시되는 신차는 전기 자



동차만 허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환경단체와 지역 시민단체들의 환경 보호 운동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비판에 직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한국 기업의 사례로 한국 전력이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 발전소 건설이 있다. 자와 9·10호기는 인도네시아가 총사업비 35억달러(약 4조 2500억원)를 들여 자카르타 인근에 건설하려는 2000MW 규모의 초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다. 한전은 여기에 5100만달러(약 620억원)의 지분 투자와 2억5000만달러(약 3000억원)의 주주대여금 보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이 약 14억달러(약 1조 7000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환경단체(트렌드 아시아,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등)들이 대기 오염 악화와 현지 주민 건강 훼손을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이 사업의 종단을 요구하였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한국 정부가 친환경정책인 그린 뉴딜을 시행하면서 해외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ESG 경영과 금융 기준은 인도네시아 투자에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의 헤지 펀드인 ‘Hedonova’는 니켈 추출과정의 환경 침해와 노동 기준 미흡을 이유로 2023년 2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기업인 ‘Mineralindo Morowali’의 지분 매각을 결정하였다.¹² 엄격해지고 있는 ESG 경영의 틀에 맞춰서 투자 결정을 해야 하는 서구의 금융투자사들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일부 산업, 특히 광물 채굴과 제련, 팜 재배 플랜테이션에 대한 투자에 대해 환경 지속가능성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차원에서 더욱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4. 경제 안보 분야 향후 협력 방향

앞서 SWOT 분석을 통해 살펴본 인도네시아가 갖는 강점과 기회를 살리고, 약점과

¹² FDi Intelligence, "Indonesia's ESG profile scares off non-Chinese investment, 2023. 2. 28

위협에서 기인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무엇일지?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안보 협력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 두 가지를 먼저 적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상대국, 즉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경제 안보상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우리의 협력 틀 안에 반영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안보는 상대국과의 이해의 일치와 목표의 조율을 통해서 최적화된 결과를 낼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경제 안보에 도움이 되고 호혜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실제 현장에서 경제안보의 기제가 작동할 수 있다. 우리의 이익과 요구사항만을 제시하고 이를 획득하고 확보하려는 접근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실제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 경우 착취적인 관계 또는 일방적인 관계로 인식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상호 호혜적이고 상대방의 이익을 함께 구현해 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가 중시하는 제조업 경쟁력의 제고, 인적 자원의 고도화, 다운스트림 산업의 육성 등과 경제 안보상의 목표를 우리가 지원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는 경제안보를 지나치게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나 회복력 확보에 국한하는 것을 지양하고 보다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경제안보의 의미와 영역을 전방위적으로 넓혀서 전반적인 경제 생태계의 연결과 산업 시너지 창출을 추구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와의 산업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 가는 것도 경제 안보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

가.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핵심 파트너십 구축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가치 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재편되면서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시대에 자원 부국이며 성장 잠재력이 큰 메가 시장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가치 사슬 변동의 수혜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인도, 멕시코 등이 중국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핵심 파트너이다. 우



선 양자 관계 측면에서 최상급의 관계인 ‘특별 전략적 동반자’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중 민주주의, 시장 경제, 법의 지배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MIKTA(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라는 중견국가 연대를 함께 이끌어 가고 있기도 하다.

인도네시아도 자국의 경제 안보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의 고도화된 제조업 기반, 첨단 기술과 자본 투자가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성장과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다운스트림 산업을 유치하고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조코위 현 정부의 시각에서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이자, 투자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간 경제 격차 해소, 제조업 기반 확충이 경제 안보 측면에서 긴요한 요소이다. 인구 대국으로 계속되는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의 혜택에 힘입어 2030년까지 3억여명으로 인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압력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지 않으면 청년 실업의 증가로 사회 불안과 균열이 야기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조코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성장에 역점을 두면서, 그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다운스트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경제 안보적인 이해(Interests)와 목표를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연결(connect)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결합(align)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민간이 ‘One Team’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가 협력의 기본 틀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세안의 최대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개발형 투자는 민간 기업의 자원과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높은 성장 잠재력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간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 공기업의 선제적인 투자 또는 진출을 장려하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필두로 한 금융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업의 진출을 견인해 나가도록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양국간 협력 확대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비롯, 13개국과 함께 IPEF에 처음부터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미국간에는 아직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인플레이 감축법(IRA)’ 상에 FTA 체결국가에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IPEF 참여국에까지 확대해 나간다면 인도네시아도 핵심 광물 원산지로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인도네시아 양자 관계가 긴밀하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 위기 대응 시스템’과 같은 상시적인 양자간 협조체제를 가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요소수 공급 관련 한-인니간 협력이다.

2021년 10월 중국 정부가 요소에 대한 생산과 수출을 통제함에 따라, 대형 차량 및 화물차의 대부분이 디젤 차량인 한국에서 심각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그 당시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등도 요소를 수출하지만 인도네시아도 중국과 같이 요소의 수출을 규제한 상태였다. 요소 수입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던 우리나라는 일시적으로 요소 및 요소수의 품귀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디젤 차량에 대한 요소수 부족으로 큰 위기를 겪어, 건설기계, 버스, 트럭 등의 대형 차들은 운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당시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를 하여 긴급 요소 공급에 합의하였던 문제 해결에 나선 바 있다.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이 한국의 요소수 대란을 돕기 위해 향후 3년간 한국에 월 1만톤(t)의 요소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를 통한 요소 공급 합의는 수입선 다변화와 일시적인 공급망 교란 대처 차원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요소 생산량, 경제교류 성숙도, 지리적 인접성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 장기적, 안정적으로 요소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다.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요소수 공급망의 리스크가 항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인도네시아와 호주 등 요소 생산 국가와의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지 않았다는 점은 앞으로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나. 기술우위 산업분야의 아세안 거점 조성



제조업 후발주자인 인도네시아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의 기치 아래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국, 일본, 유럽 등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GDP 기여도와 수출잠재력을 고려하여 식·음료, 화학, 섬유, 봉제, 전자, 자동차, 의료 및 제약을 7대 우선 육성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산업은 향후 제조업 GDP 기여도의 60% 이상, 제조업 수출의 65% 이상, 제조업 고용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대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여타 신흥 경제권 국가들이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대비를 위해 로봇틱스, AI, 첨단 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비해 인도네시아는 전통 제조업을 집중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정책을 활용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투자와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이를 착안하여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롯데 케미칼은 42억불 규모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 중에 있다.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 회사인 크라카타우 스틸(PT Krakatau Steel)와 합작하여 동남아 최초의 일관제철소를 설립, 운영 중에 있다. 연산 300만톤 규모의 고로 1기와 후판 공장을 가동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동남아 지역에서 자동차 판매량 1위 국가로, 정부는 인구 2.7억 명의 내수시장,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인 풍부한 니켈 매장량 등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2030년까지 동남아의 전기차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총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을 2025년까지 20%, 2030년까지 25%, 2035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와 관련하여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 각종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다. 2021년 6월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2040년부터 전기오토바이, 2050년부터 전기차에 한해서만 신규판매를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동화(electrification)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현대차는 브카시 델타마스 공단 내 완성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양산에 돌입했다. 향후 25만대 규모로 생산능력을 늘리고 인도네시아 공장을 핵심 생산 기지로 키워간다는 구상이다.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2021년 9월 아세안 전기차 시장 공략과 글로벌

별 전기차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배터리 셀 합작공장을 착공했다. 배터리 셀 합작공장은 2024년 상반기 중 배터리 셀 양산을 시작한다. 합작공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15만대분 이상에 달하는 연간 10기가와트시(GWh) 규모 배터리 셀을 생산할 수 있다. 합작공장의 배터리 셀은 2024년부터 생산되는 현대차 전기차를 비롯해 향후 개발될 다양한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한 전기차/배터리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을 비롯해 LX인터내셔널·포스코·중국업체 화유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니켈 광산 채굴-제.정련-전구체-양극재-배터리 셀 생산으로 이어지는 완결형 가치 사슬 구축을 위한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더스트리 4.0’ 시대를 맞아 한국의 강점과 인도네시아의 기회를 접목해 나간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진행중인 전기차·배터리 생태계 확충에 역점을 두면서 그린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 협력 강화

최근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중되는 에너지, 광물, 식량 공급망의 교란은 세계경제 전반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의 공급망 안정화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천연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량은 세계 1위, 보크사이트는 5위, 금은 7위이다. 구리와 주석도 주요 생산국이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과 인도 등이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공급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이를 여하히 활용하고 최적의 접근 방안을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2022년 2월 자카르타를 방문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애를랑가 하르타르토 (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과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를 공동주재하고 ▲핵심광물 ▲전기차 ▲전기오토바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경제자유구역 등의 협력확대를 내용으로 한 5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¹³ 우리측은 점점

¹³ 한국무역협회 뉴스(KITA.net), 2022. 2. 23



귀해지는 니켈, 망간, 코발트 등 광물의 안정적 공급처가 중요한 반면, 인도네시아 측은 원자재 수출국에서 탈피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점이 상호 협력을 가능케하는 접점이 된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핵심 자원 공급처로서 갖는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활용할겠다는 노력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어서 2022년 7월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 계기에 다시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협력 의지가 확인되었다. 2022년 11월 한-인도네시아 에너지 포럼에서 '자원 공급망 협력'을 첫 번째 의제로 선정하고 양국 협력안을 논의한 점은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이미 진행 중이다. 현대차의 완성차 생산 공장 완공(2022년 1월)을 시작으로 현대차 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 추진중인 배터리 셀 공장이 2024년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LG에너지솔루션은 광산 채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 니켈 광물 확보에 나서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스코 홀딩스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 니켈 함유량 기준 연산 12만t(톤) 규모의 니켈 중간재 생산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포스코 홀딩스는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전기차 120만대분에 해당하는 연산 6만t(니켈 순 함량 기준) 규모의 생산공장을 연내 착공해 2025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¹⁴

배터리 소재 이외에도 보크사이트, 코발트, 망간 등의 핵심 광물의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시점이다. 향후 원료 확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데 비해 인도네시아의 광물 수출 제한 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응책과 기업들의 전략적인 현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産 석탄의 안정적인 수급도 계속 모니터링할 부분이다. 인도네시아의 석탄 내수 공급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일시적인 수출 중단 또는 제한 조치가 발동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부족 문제가 조기에 안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¹⁴ 메일경제, '포스코 홀딩스 국내최초로 해외서 니켈 생산', 2023.5. 3

전체 보크사이트와 구리 수입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높지 않지만 수출 중단으로 인한 광물 가격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유념할 대목이다.

정부 및 유관 공기업은 광물 생산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주요 광물의 공급 관련 대화·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리스크 감소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업들은 업스트림 부문까지 투자를 확대해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에서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니켈, 코발트, 리튬과 같은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대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같은 카르텔 설립이 논의되고 있는 점도 유의하여 대처할 부분이다.

라. 거대 소비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협력 확대

세계 제4위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는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한류로 높은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 보너스 효과가 2030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10년이 경제의 황금시대를 향유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속적인 고용 창출이 이뤄지게 되면 인도네시아의 경제 규모는 2050년 세계 4위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내다보이고 있다.¹⁵

인프라, 전자 상거래 및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 교육 서비스와 테크(tech)를 결합한 사업과 친환경 산업 분야로의 진출 기회 모색이 바람직하다. •

인도네시아가 추진중인 장기 저탄소 전략에 따라 앞으로 시장이 형성될 신재생 에너지 발전, 태양광 패널, 전차가 부품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 아직까지 석탄과 가스, 디젤 등이 전체 에너지 믹스에 85.6%(62.4GW) 차지('21.4)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태양광 위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수력·지열·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이 예상되고 있다.¹⁶

¹⁵ PwC, 'The World in 2050 report'(www.pwc.com) , 2017.2

¹⁶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 '2023 인도네시아 진출 전략 보고서', 2022. 12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은 의류와 섬유, 신발, 목재, 가구 등 노동 집약적 산업에 강점이 있지만 생산 방식은 사람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는 제품의 설계·개발부터 생산과 유통에 걸쳐 정보기술(IT) 등이 결합한 지능형 공장을 의미한다. 생산 전 분야를 IT 기술로 통제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와 생산성 향상은 물론 각종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은 의류 산업처럼 인도네시아에 강점이 있는 노동 집약적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분야는 방산 협력이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방산수출 초기 단계에서 기본 훈련기, 잠수함, 고등훈련기 등의 해외 최초 수출 기회를 제공한 국가이다. 현재 한국이 방산수출 선도국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주요 파트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첨단 무기체계(KFX/IFX 사업)의 국제 공동연구 개발을 실시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동남아시아 최대의 방산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다대하다. 우리 방산 기업이 인도네시아 기업에 기술 이전과 부품 하청을 주는 방식의 무기 공동 생산(joint production)과, KF-21 사례와 같이 무기 공동개발 사업을 통해 공동 생산한 무기를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국가에 함께 수출하는 방식을 추진해 볼 수 있다.

/끝/





◆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정보

1. 유력 언론인

인물	성명 및 직책	주요 참고 사항
	<p>Kornelius Purba managing editor Jakarta Post</p>	<p>-인도네시아 최대 영자 일간지인 Jakarta Post의 편집장으로서 본인 명의 고정 칼럼 게재 -인도네시아의 대외관계와 거버넌스에 관한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인으로 평가</p>
	<p>Wahyu Dhyatmika, CEO, Info Media Digital (Tempo Digital)</p>	<p>-인도네시아내 탐사 취재 보도로 영향력 있는 Tempo지의 편집장을 역임한 언론인 -부정부패, 인신매매, 환경 오염 등 집중 취재로 높은 평가</p>
	<p>Endy M. Bayuni, Facebook Oversight Committee inaugural member (2020~) Former senior editor of Jakarta Post</p>	<p>-인도네시아내 권위있는 언론인 겸 오피니언 리더로 평가 -Jakarta Post 편집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고 외국 언론매체에도 자주 기고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개방, 변화를 촉구하는 논조로 여론 형성을 주도</p>

인물	성명 및 직책	주요 참고 사항
	<p>Najwa Shihab, an Indonesian actress and journalist, Talk Show ho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TV 쇼 호스트 -Metro TV의 토크 쇼 프로그램 'Mata Najwa'를 진행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인플루언서
	<p>Budi Putra, Founder and CEO, Teroka Kairos (커뮤니케이션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네시아 테크 관련 전문 기자로 시작해서 자카르타 포스트 디지털, Yahoo Indonesia 등을 거쳐 지금은 크리에이터 겸 테크 전문가로 활동



	<p>Desi Anwar, Indonesian news presenter cum CNN Indonesia Talk Show host</p>	<p>-인도네시아에서 뉴스 전용 매체로 시작한 Metro TV의 전문 앵커로 활약하다가 2015년 이후 CNN Indonesia 방송에서 자신의 코너 운영 - TV 호스트 외에도 Jakarta Globe, Tempo등 현지 언론에 자주 기고</p>
---	---	--

2. 정·관계 인사

인물	성명 및 직책	주요 참고 사항
	<p>Luhut Binsar Pandjaitan, Coordinating Minister for Maritime Affairs and Investment (2019 ~현재)</p>	<p>-인도네시아 정부내 투자. 인프라 업무를 포함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 수행 - 조코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자 후원자로서 한국,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p>

	<p>Erick Thohir, Minister of State-Owned Enterprises</p>	<p>-기업인 출신으로 공기업부 장관을 맡아 에너지, 광산업을 비롯, 전기차, 배터리, 철강 등 기간산업 육성에 관여 -대표적 에너지 기업인 Adaro Energy 대표이사인 Garibaldi Thohir 회장의 친동생</p>
	<p>Bahlil Lahadalia, Minister of Investment</p>	<p>-투자청장의 직위에서 장관급 부서장으로 격상하여 해외 투자 유치를 담당 - 조코위 대통령 제 2기 (2019-24)의 주요 투자프로젝트를 주도</p>
<p>인물</p>	<p>성명 및 직책</p>	<p>주요 참고 사항</p>
	<p>Airlangga Hartarto, Coordinating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p>	<p>-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 역임 후 경제조정부 장관 (부총리) 재임중 - 인도네시아 정당 중 제 3 당인 골카르당 (Golkar) 총재</p>
	<p>Agus Gumiwang Kartasasmita,</p>	<p>-인도네시아 산업 정책과 제조업 육성을</p>



	<p>Minister of Industry</p>	<p>이끄는 산업부장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langga 경제 조정부 장관의 측근으로 골카르당 소속
	<p>Arifin Tasrif, Minister for Energy & Mineral Resourc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 산업을 총괄 -광업 채굴 인허가권을 보유 - 기업인 출신으로 주일본 대사를 역임

3. 경제계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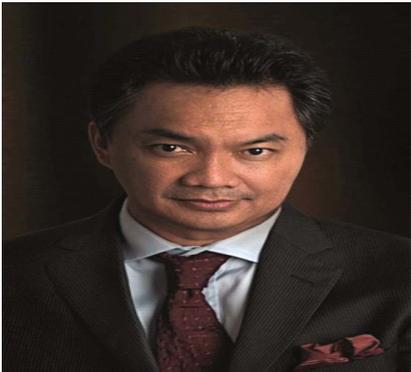
인물	성명 및 직책	주요 참고 사항
----	---------	----------

	<p>Toto Nugroho President Director, Indonesia Battery Corporation (IBC)</p>	<p>-인도네시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위한 공기업의 수장으로 활동 -PLN, Pertamina, Pupuk Indonesia, Semen Indonesia 등 공기업에서 주요 직책 수행</p>
	<p>M. Arsjad Rasjid, President Director, Indika Energy and Chairman of Indonesi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KADIN)</p>	<p>-인도네시아 굴지의 에너지 기업인 Indika Energy 회장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 재임중</p>
	<p>Chairul Tanjung, Chairman, Trans Group and former Coordinating Minister for Economics</p>	<p>-유통, 미디어, 금융 그룹(Trans Group and Mega Group)의 총수 -유도요노 전임 대통령 정부하에서 투자청장, 경제조정장관직 역임 -경제계의 막후 실력자</p>
<p>인물</p>	<p>성명 및 직책</p>	<p>주요 참고 사항</p>



	<p>Pandu Patria Sjahrir, director of Toba Bara Sejahtera, a company engaged in coal mining industry.</p>	<p>-인도네시아 석탄 광업계의 대표적 인사로 Luhut 해양투자조정장관의 친조카 -인도네시아 석탄 광업협회 회장이자 증권거래소 이사</p>
	<p>Garibaldi Thohir, CEO, Adaro Energy</p>	<p>-인도네시아 최대의 광산 에너지 기업인 Adaro Energy 사의 회장 -Erick Thohir 공기업부 장관의 친형</p>
	<p>Michael Widjaja, Group CEO of PT Sinar Mas Land.</p>	<p>-인도네시아 최대의 부동산 및 개발 기업인 Sinar Mas Group 의 CEO - Sinar Mas Group 의 영향력을 활용, 에너지 분야에도 진출</p>

4. 학계 인사

인물	성명 및 직책	주요 참고 사항
	<p>Dr Dewi Fortuna Anwar, Professor at the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LIPI)</p>	<p>-정치담당 차관, 부통령 정책자문 등 실무 정책직책을 거치고 아세안, 군축, 안보 등을 연구한 대표적 학자 - 하비비 센터 민주주의 인권 Chair 역임</p>
	<p>Dr Philips J Vermonte, Former Executive Director CSIS and researcher, CSIS Indonesia</p>	<p>인도네시아 정치, 대외 정책 및 비전통적 안보 이슈에 정통한 전문가 -인도네시아내 대표적 Thinktank 인 CSIS Indonesia 소장을 역임 -한-아세안 협력에 관해서도 수차례 발표</p>
	<p>Dr. Dino Patti Djalal, Head of the Foreign Policy Community of Indonesia (FPCI)</p>	<p>-외교관 출신으로 유도요노 대통령 외교보좌관과 주미국 대사를 역임한 정책통 -현재 외교안보연구 플랫폼인 FPCI 를 창립하고 이를 주도</p>
인물	성명 및 직책	주요 참고 사항



	<p>Dr. Rizal Sukma, Senior Fellow at the 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in Jakarta, Indonesia</p>	<p>-CSIS Indonesia 소장(2009-2015)을 역임한 대표적인 Thinker - 주영국 인도네시아 대사로도 재직(2016-2020)</p>
	<p>Kevin O'Rourke, writer and producer of Reformasi Weekly, a subscription service analyzing politics and policymaking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perating in Indonesia</p>	<p>-주간 정보지인 Reformasi Weekly Service on Indonesia 를 발간 -인도네시아 정치, 관료, 세계 동향에 정통</p>
	<p>Lili Yan Ing, Lead Advisor (Southeast Asia Region) at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ERIA)</p>	<p>-대통령실 무역, 투자 담당 선임 보좌관 (2015-16), 무역부장관 정책 보좌관(2017-19)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통상 전문가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의 핵심 브레인</p>